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21일(월)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생활환경과	담 당 자	· 환경안전팀장 윤은주 ☎440-3711 · 담당자 오현정 ☎440-371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남동산단 화학사고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 인천시-환경부. ‘남동국가산업단지, 화학물질 원격 모니터링 사업’ 협약 -
 - 원거리에서도 화학물질 유출 조기 감지해 사고에 신속대응 -

인천광역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화학물질 원격 모니터링 사업’ 추진을 위해 21일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 맹성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 사업은 화학물질 유출 사전예방과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전액 국비 61억 원)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남동산단에는 현재 650여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이 시스템은 남동산단 내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 설치되며, 주변 원거리

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감지할 수 있는 고해상도 열화상카메라 및 적외선 분석장비 등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시스템은 오는 9월 착공해 12월말에 준공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화학사고 안전관리 및 공조체계 강화에 힘쓰며, 환경부는 시스템 설치·운영과 화학사고 대응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화학사고는 대형사고로 파급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사고 초기 대응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사업을 통해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전제일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참고> 사업개요

참고 1

남동산단 화학사고 원격 모니터링 사업 및 협약식 개요

화학물질 유출 조기 감지 및 대응정보 공유로 화학안전 공조체계 강화하기 위한 남동산단 화학사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남동국가산단* * 설치위치: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옥상
- (사업기간) 2022.7. ~ 2023.12.(1년 6개월)
 - ※ 시공: 2022. 9. ~ 2022.12.(4개월), 시운전: 2023. 1. ~ 2023.12.(12개월)
- (사업비) 61억원 (전액국비, 환경부 직접사업)
- (사업주체) 환경부(우리시 역할: 설치 부지제공, 화학사고 공조체계 협조)
- (사업내용) 열화상카메라 등 설치하여 화학물질 유출 상시감지하여 사고시 신속한 대응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2. 9월 착공예정)

□ 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 2022. 3. 21.(월) 15:20~15:50, 市 시장접견실
- 참석 : 인천시장, 환경부차관, 화학물질안전원장, 맹성규국회의원 등
- 협약내용
 - (인천시) 설치 부지 제공 및 남동산단 화학사고 대응 공조체계 강화
 - (환경부) 사업 추진 총괄 및 화학사고 대응 모니터링 정보 제공

□ 협약식 세부일정

시 간		행사 내용	비고
15:20 ~ 15:30	10'	• 차 답	
15:30 ~ 15:35	5'	• 행사안내 및 내빈소개	사회자
15:35 ~ 15:45	10'	• 시설설치 및 운영계획(안) 발표	환경부(안전원)
15:45 ~ 15:50	5'	• 업무협약 서명, 기념 촬영	협약 참석자

붙임 노후산단 화학사고 원격 모니터링 사업체계 1부. 끝.

참고 2

남동산단, 화학사고 원격 모니터링 사업 체계(안)

- 광화학 카메라를 기반으로 ①산단 지역을 원격 24시간 모니터링하고, ②AI로 화학사고를 구분한 뒤 ③드론으로 사고현장을 先대응하는 체계

① 비대면 원격 탐지	② 인공지능 사고 감시	③ 드론 운용·현장 조치
유독가스 누출 탐지	사고 유형 및 확산범위 예측	화학사고 즉시 확인·관리



- 모니터링 정보 활용 예시

① 초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	② 적외선 분광기(FT-IR)
<p>고정밀 모니터링(최대 60배, 左) 및 열화상(右)</p>	<p>육안으로 식별불가한 화학물질(가스)을 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지거리: 2~10 km · 광학 및 열화상 동시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지거리: ~5 km · 감지물질: 실시간 감시 35종* * 암모니아, 벤젠, 황화수소 등

참고3 노후산단 화학사고 원격 모니터링 사업 설치 장소

○ 반경 표시(최대 2.7km)



○ 설치위치 및 형태

설치위치(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형태(pole 형태)

